

## 2014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7차(10월 접수분) 심사평

### <2014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7차>

대관료 지원사업은 국내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, 공연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
지원대상 공연은 전문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, 주식회사, 엔터테인먼트사의 자체기획공연 및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, 라이선스 뮤지컬, 동일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. 또한 국립·공립(도·시·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단체, 협회,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, 학교,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,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, 지원을 받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사업심의는 공연단체의 역량(30%), 공연작품의 예술성(50%),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(20%)를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, 총 80이 신청되어 51건이 선정되었다.

금회 대관료 지원사업의 선정비율은 54.9%로 그동안의 평균선정비율(지난 4, 5, 6, 7, 8, 9월 평균 선정비율 66.25%)보다 낮아졌다. 이는 신청 프로그램 중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이 미흡한 단체가 많았으며 그 외에 예술적 수준이 부족하거나, 협회 및 주식회사, 공연장과의 공동기획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.

대관료 지원사업이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.

대관료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